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제조업은 금년 1분기중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고 취업자수는 3.3% 줄어들었다. 수출의 경우 1월에는 증가하였으나 2월과 3월에 감소폭을 확대하며 마이너스 성장(-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은 생산, 고용, 수출이 모두 감소했으나 경남은 조선업 생산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시현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 감소폭이 가장 컸고 조선을 제외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금속 등 지역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 부진은 심화될 전망이다. 조선은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석유화학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기계, 금속 등도 국내 전방산업 및 글로벌 제조업황 침체로 부진할 전망이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출 부진 본격화에 따른 제조업 충격 심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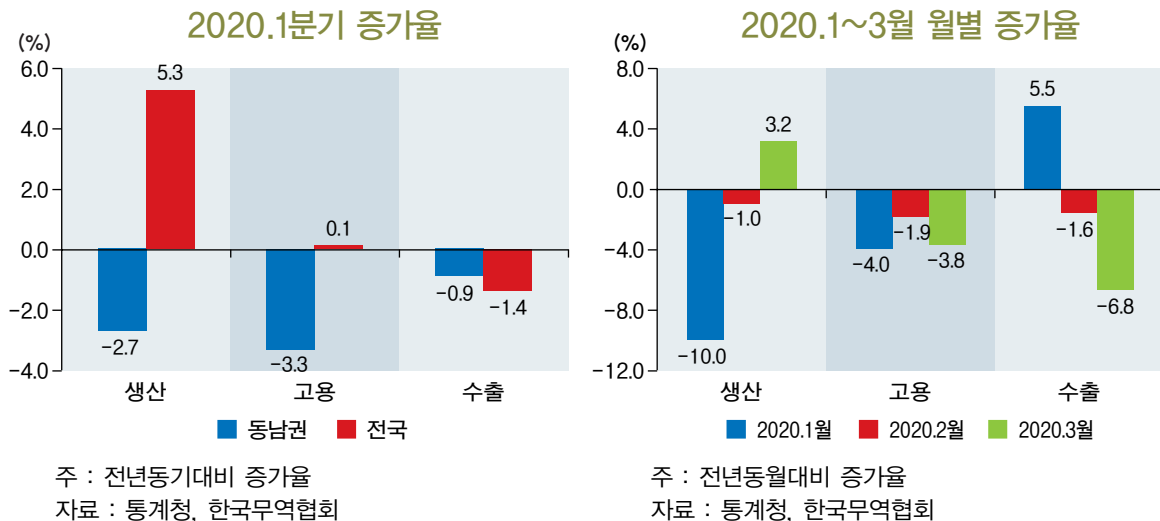
금년 1분기 동남권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월별로는 1~2월은 감소했으나 3월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²⁾ 전국은 같은기간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제조업 취업자수는 3.3% 줄어든 83만 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 보더라도 1~3월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3분기 제조업 취업자수(99만 1천명)와 비교하면 15만 2천개가 줄어든 것이다. 전국은 1분기중 동남권과 달리 증가세(0.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수출의 경우 0.9% 감소하며 전국(-1.4%)과 비교할 때 감소폭은 작았다. 대중국 수출(-23.3%)이 급감했으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4.9%)이 증가하며 하락폭을 축소하였다. 월별로는 1월에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2월과 3월에는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제조업 생산, 고용, 수출 동향



1) 같은 기간 출하(-1.8%)는 줄어듦고 재고(13.1%)는 크게 늘어남

2) 3월 생산이 늘어난 것은 1월과 2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자동차, 석유정제 산업이 증가세로 전환된 데 기인

3) 1분기 전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

4) 전국 제조업 취업자수는 1월(8천명)과 2월(3만4천명)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3월(-2만 3천명)은 감소

[참고] 지역별 제조업 생산, 고용, 수출 동향

① 생산

- 2020년 1분기중 부산,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부진 등으로 감소했으나 경남은 조선 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플러스 성장

(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1월]	[2월]	[3월]
부산	95.1 (-3.2)	92.6 (-2.6)	89.3 (-0.2)	85.9 (-9.1)	86.8 (8.8)	95.3 (1.3)
울산	94.0 (3.3)	95.7 (1.8)	87.8 (-6.7)	88.2 (-10.8)	72.8 (-15.3)	102.3 (5.1)
경남	88.9 (-6.0)	90.0 (1.2)	86.8 (0.5)	82.7 (-9.4)	83.7 (11.0)	94.0 (1.7)

② 고용

- 부산, 울산은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남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천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1월]	[2월]	[3월]
부산	286 (-3.4)	284 (-1.0)	261 (-11.4)	258 (-12.3)	262 (-10.8)	262 (-11.0)
울산	185 (-4.0)	176 (-4.5)	168 (-4.9)	168 (-4.9)	168 (-4.1)	168 (-5.7)
경남	418 (-2.8)	396 (-5.2)	410 (3.4)	414 (2.4)	411 (5.8)	407 (2.2)

③ 수출

- 부산, 울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국 수출부진 등으로 감소했으나 경남은 대카자흐스탄 화학기계 수출 등으로 증가

(백만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1월]	[2월]	[3월]
부산	14,407 (-4.4)	13,924 (-3.4)	3,068 (-7.7)	964 (-19.4)	994 (-1.2)	1,111 (-1.1)
울산	70,127 (5.1)	69,530 (-0.9)	16,073 (-2.7)	5,555 (-4.7)	4,808 (-3.9)	5,710 (0.4)
경남	40,257 (-32.3)	39,353 (-2.2)	10,232 (4.3)	4,407 (32.3)	2,890 (2.5)	2,935 (-19.7)

주 : 1) 생산은 제조업 생산지수, 고용은 제조업 취업자수, 수출은 총수출액 기준

2) ()내는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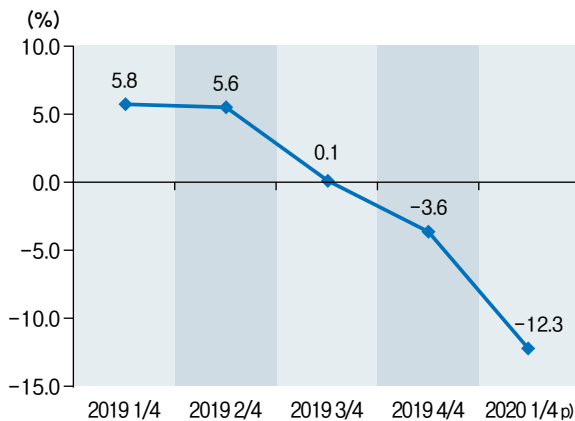
자동차, 동남권 주력산업중 생산 감소폭 최대 내수는 미약한 회복, 수출은 부진할 전망

동남권 자동차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부품조달 차질, 현대차 생산라인 확진자 발생⁵⁾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경우 신형 SUV 등 일부 차종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13.5%, 수출은 4.3% 감소했다. 르노삼성차는 기저효과 및 신차효과⁶⁾ 등으로 내수가 20.1% 증가했으나 수출은 닛산 로그 물량 축소 등으로 62.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내수는 미약한 회복흐름이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재개⁷⁾, 신차출시⁸⁾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일부 훼손되면서 부진폭이 확대될 전망이다.⁹⁾

동남권 자동차 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주요 완성차업체 판매 동향

구분	현대차		르노삼성차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월	47,591 (-21.3)	74,877 (-8.8)	4,303 (-16.8)	1,930 (-77.3)
2월	39,290 (-26.4)	46,838 (-21.4)	3,673 (-25.4)	3,384 (-50.2)
3월	72,180 (3.0)	95,786 (11.8)	12,012 (83.7)	3,088 (-57.4)
1분기	159,061 (-13.5)	217,501 (-4.3)	19,988 (20.1)	8,402 (-62.8)

주 : ()내는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5) 제네시스, GV80,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 2공장 생산라인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2월말 일시적 가동 중단

6) 르노삼성차는 1, 2월 내수가 부진했으나 3월중 신차 XM3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가세 시현

7)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으나 한시적(2020.3~6월)으로 재개

8) 현대차 GV80 · G80 · 쏘나타, 르노삼성차 XM3 등의 신차출시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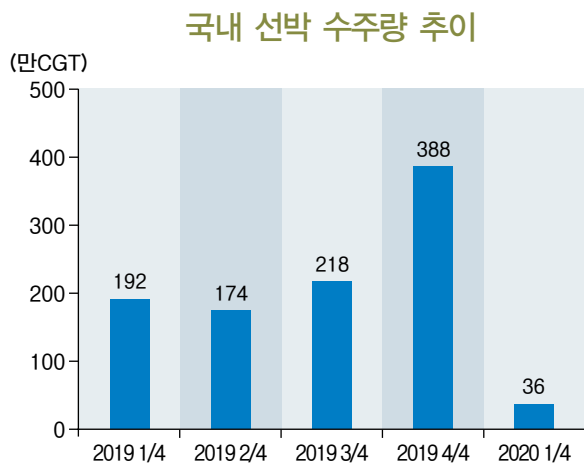
9)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전망에서 4월중 국내 완성차업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3.1% 감소한 12만 6,589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조선, 생산은 6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수주는 급감 생산은 증가세 지속, 수주는 완만한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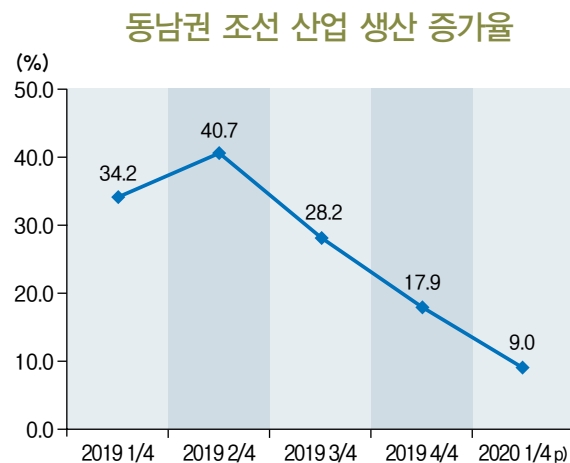
금년 1분기중 국내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81.1% 감소한 36만CGT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전세계 선박발주가 급감(-71.3%)한 데 주로 기인한다.¹⁰⁾ 이와함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친환경선 발주 지연도 수주 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생산의 경우 증가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남권 조선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9.0% 늘어나며 2018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2018~19년중 기록한 양호한 수주실적¹¹⁾이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생산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조선 산업 생산은 금년중 증가세를 이어나가겠지만 수주잔량 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¹²⁾ 선박 수주의 경우 저유가 및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발 프로젝트 개시¹³⁾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형사 중심의 완만한 회복이 기대된다.



자료 : Clarksons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0) 중국은 같은기간 151만CGT를 수주하였으나 대부분 자국이 발주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물량

11) 연간 국내 수주량(만CGT) : 1,095('15년) → 224('16년) → 788('17년) → 1,319('18년) → 972('19년)

12) 1분기말 기준 국내 수주잔량은 전년동기대비 5.1%, 전년말 대비 9.5% 감소한 2,074만CGT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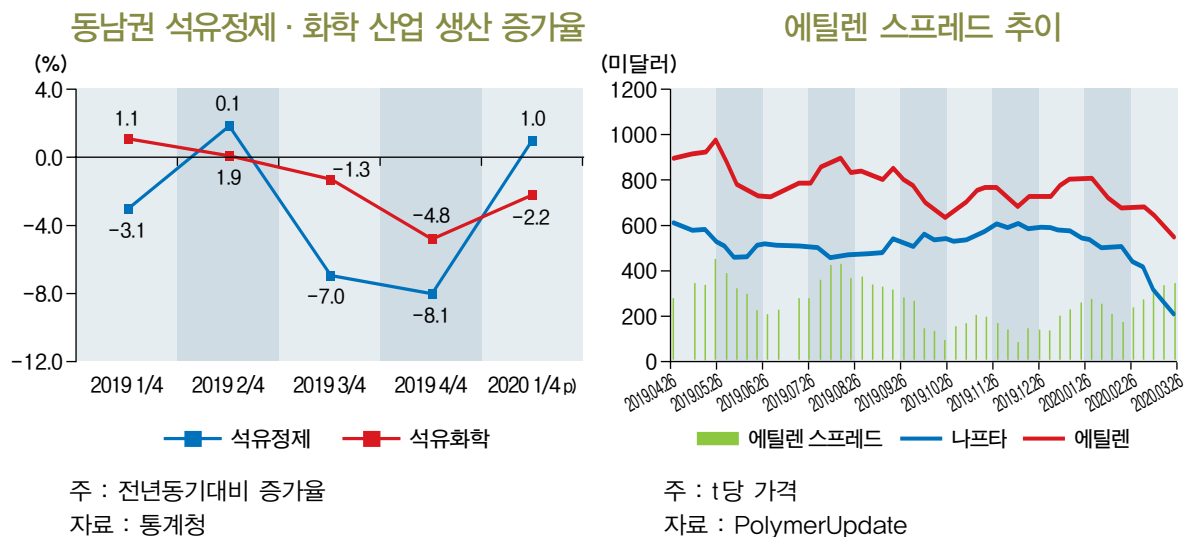
13)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최근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금년중 60~120척에 달하는 LNG선 발주가 기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생산 부진 글로벌 과잉공급 상황은 업황 회복 제약

동남권 석유정제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소폭 증가(1.0%)에 그쳤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이동 제한 등으로 항공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 급감한 것이 증가세를 제약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부문에서는 석유정제 산업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⁴⁾ 이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과 마이너스 정제마진 등에 기인한다.¹⁵⁾ 석유화학 산업도 원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 수준에¹⁶⁾ 머물면서 수익성 개선을 제약했다.

금년중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 생산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유재고량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 ECC 및 중국 NCC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잉공급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14)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적자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15) 정제마진이란 정유 업계 수익성 지표로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비·운송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것임.

정제마진은 3월 셋째 주 이후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

16)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가격(제품가격)에서 나프타가격(원료가격)을 뺀 차액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PolymerUpdate에 따르면 에틸렌 스프레드는 금년 1~2월중 200달러 수준에서 금년 3월들어 300달러대 초중반으로 상승. 다만 손익분기점(250~300달러)을 감안할 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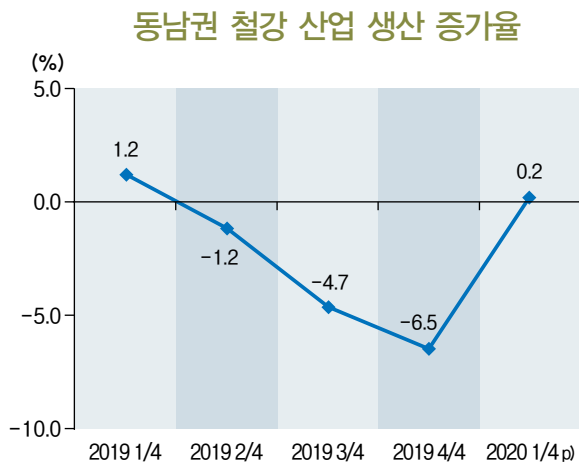
철강, 생산 증가세 미약

국내 전방산업 및 글로벌 제조업황 침체로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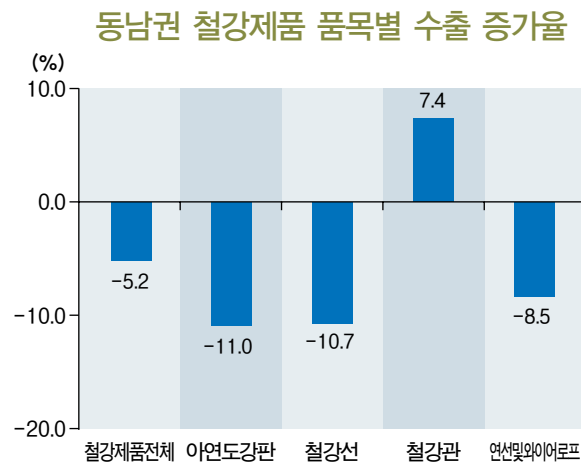
동남권 철강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산업을 제외한 주요 전방산업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과잉공급 지속 및 수요 감소 등으로 미약한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¹⁷⁾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자동차, 건설, 가전 등 전방산업 업황 악화가 지목된다. 수출은 세계 철강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미국, 유럽 등의 제조업체 수요 하락으로 아연도강판, 철강선, 연선티와이어로프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방산업 부진, 전세계 제조업황 침체, 글로벌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동남권 철강산업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산업활동 재개 및 투자 확대 등은 감소폭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1)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철강제품 (MTI 6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17)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철강사들은 설비가동 중단 등 글로벌 재고 증가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한국철강협회 발표에 따르면 US스틸과 ArcelorMittal 등 미국 주요 철강사들이 고로를 비롯한 다수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3월말 글로벌 가동률은 71.6%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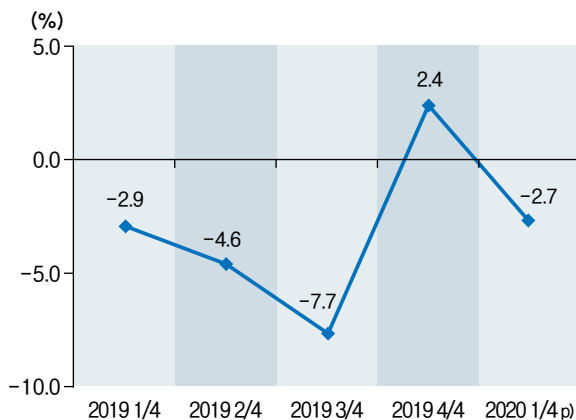
기계, 생산 감소세로 전환 설비 및 건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 지속될 전망

동남권 기계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였다. 내수 부문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¹⁸⁾,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설비 및 건설 투자 감소가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년 1분기중 국내 금속공작기계 및 건설광산기계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8% , 3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수출¹⁹⁾은 전년동기대비 0.2%의 미약한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등의 영향으로 섬유 및 화학기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35.4%)했으나 금속공작기계(-29.6%), 건설광산기계(-11.3%) 등은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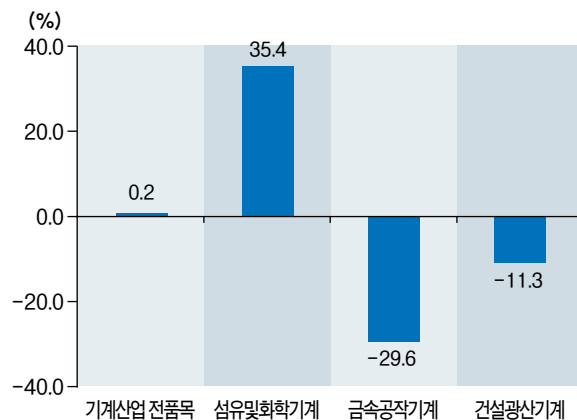
향후 기계 산업은 국내 전방산업 부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유럽 등의 민간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등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등은 부진폭 축소 요인으로 파악된다.²⁰⁾

동남권 기계 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기계 산업 품목별 수출 증가율



주 : 20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18) 제조업 가동률 지수(전국기준, 2015=100p)는 지난해말 102.7p에서 금년 2월 90.2p로 크게 하락

19) 기계 산업 수출액은 MTI 기준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및금형), 79(기타기계류)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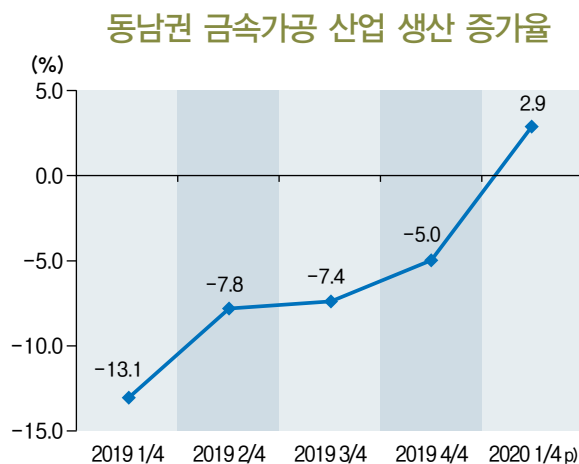
20) 중국은 금년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내 GDP의 8%에 달하는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SOC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기계 산업 수주 확대 기대

금속가공, 생산 소폭 증가 전방산업 부진으로 증가세 지속 기대는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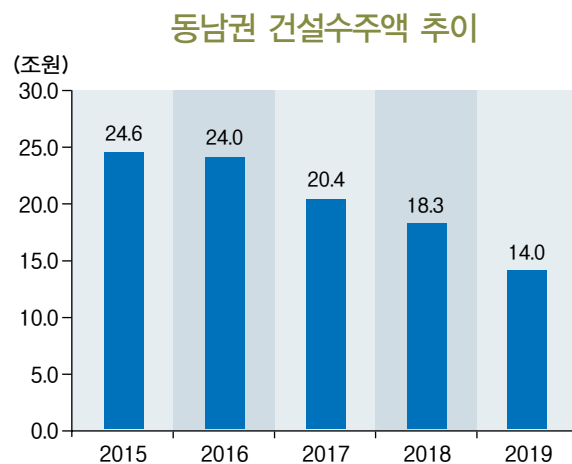
동남권 금속가공 산업 생산은 금년 1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전방산업 생산 활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산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2015년 1분기 이후 20분기 연속 감소²¹⁾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만 수출의 경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글로벌 제조업 부진 및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금속 단조 및 열처리 제품, 구조용 금속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²²⁾

금년중 금속가공 산업은 조선을 제외한 주요 전방산업 부진으로 내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의 수요는 2018년과 2019년 건설수주액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²³⁾ 수출의 경우도 저유가에 따른 중동지역의 발전 및 플랜트 부문 수입 감소,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자동차, 건설 관련 제품 수입수요 하락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21) 일시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2018년 4분기는 제외

22) 1분기 국내 구조용 금속제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금속단조 및 압형제품은 같은기간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

23) 일반적으로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간 시차는 2~6분기임을 감안할 때 금년중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수출 부진 본격화되며 제조업 충격 심화 가능성 생존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중요

동남권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 급감,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1차적인 충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 운송 등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 부문도 생산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히 1분기 소폭 감소에 그치며 선방했던 동남권 수출실적이 2분기부터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 악화 등의 여파로 지역 제조업 생산 부진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특단의 비상경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출 감소 충격 여파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동남권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24) 25)}

이와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면 제조업을 둘러싼 기존 생산, 유통, 수요 구조 등의 프로세스와 업계 판도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정국에 의존했던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전 세계적인 제조업 리쇼어링에 대비하여 국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마련 및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와함께 새로운 소비 패턴과 유통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가올 제조업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4) 미국은 동남권 수출의 17.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중국이 13.2%로 2위(2019년 기준)

25) 동남권의 대미국 5대 수출품목 및 비중(2019년 기준)

- 동남권 : 자동차(42.2%), 자동차부품(8.1%), 석유제품(6.9%), 항공기부품(3.7), 냉장고(3.0%)
- 부산 : 자동차(36.7%), 항공기및부품(7.9%), 기계요소(5.7%), 주단조품(5.6), 산업용 전기기기(5.0%)
- 울산 : 자동차(63.0%), 석유제품(12.2%), 자동차부품(7.6%), 기초유분(2.0), 건설광산기계(1.8%)
- 경남 : 자동차부품(11.5%), 냉장고(10.0%), 항공기및부품(8.8%), 섬유및화학기계(8.4%), 고무제품(7.6%)

[참고문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2020.4

울산발전연구원, “코로나19, 울산경제강타... 산업체 특단 지원을”, 2020.1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0.3

한국철강협회, “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2020.3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2019.11

부동산 114, www.r114.com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同苦同樂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온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씨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4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4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